

최경환 ‘자녀취업’ 정종섭 ‘軍복무’ 특혜 의혹

■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별 쟁점

이기권 ‘직무수행 능력’ 김희정 ‘선주협회 지원 시찰’ 논란

국회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우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직무수행 능력과 함께 자녀 취업 특혜와 고액 후원금 수령 등 도덕성 문제가 거론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주문했고 같은 당 유성걸 의원은 “세수 정수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29조원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그 4배 가까운 96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2년차에 벌써 46조원 적자를 내고 있다”고 현 정권의 실정을 거론했다.

같은당 홍중학 의원은 “후보자가 자녀가 삼성전자와 미국 골드만삭스에 취직해 있는데, 부총리라는 직위는 해당 기업이 수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경기 상황만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세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군 복무 중 학업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본업인 대학교수로 지난 5년간 벌어들인 돈이 5억2000만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부수입은 그보다 훨씬 많은 5억8000만원이 넘는 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의원 역시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복무특혜, 학력 및 경력의 진위여부, 이념과 정치색,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등

장관 내정자가 고루 갖춘 쟁점사항”이라며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정종섭 후보자는 “평생 투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는 한편, 군 복무 중 학업 논란과 관련 “석사과정을 군복무 중에 다닌 사실은 없다”면서도 “박사 과정은 군복무 중 일부를 다녔다”고 인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보다는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및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에 대해 우려를 지적하고 이 후보자의 견해를 따졌다.

특히, 이 후보자는 범의노조 통보를 받

은 전교조 문제와 관련,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국 시찰을 다녀온 것과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외국 시찰 문제와 관련해 “해외 출장 활동에 선주협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으며 “후원금 역시 모든 것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박’ 인사청문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오늘 이병기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野 “보고서 채택 막을 정도 아닌 것 같다”... 낙마 입장 철회

여야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9일 오후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8일 기자들에게 “내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이 후보자의 자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

했다.

정보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이틀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했다. 다만, 이날 청문회는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 민감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에 돈 받고 (SNS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졌는데

요즘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 제2차장과 3차장도 출석했다.

한편, 전날 국정원 직원의 인사청문회장 촬영과 관련, 여야는 촬영 사진과 영상에 대한 분석결과 삭제흔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법사위, 세월호 후속법안 상정

범죄수익 몰수 대상 상속·증여재산도 포함 ‘유병언법’ 등

선장 인명구조 안이한 대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지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키려는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9건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제1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후속법안에 대한 논의를 6월 국회에서 시작해 조속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속·증여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의 형량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세월호 선사인 정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부도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받고 그룹 경영권을 다시 회복 받았던 점을 감안,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한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2건도 상정됐다.

최근 검찰의 금수원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구원파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겨냥,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했다.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날 상정된 ‘다중 인명 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다수의 생명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람의 안전과 연관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구도대상 범죄피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선박·항공·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참사때 대통령 어디에?

새정치 김현미 의원 질의에 김기춘 실장 “모른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요구한 269건 자료 가운데 현재까지 도착한 자료는 13건에 불과하다”며 “청와대는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말 중대한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운영위에서 사고 당일 오전 10시 처음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고 15분 뒤 유선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이 오후 5시

중장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운영위에서 김 비서실장에게 당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모른다’고 답했는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를 수 있었는가”라며 “수백 명 생명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다면 정상적인 나라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기관보고가 오는 10일 열리는 만큼 그 이전까지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4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생 ~ 대학생
- 단, 2013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0명, 대학생 0명)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I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4. 7. 7(월) ~ 7월 31(일)목
- 최종선정 : 2014. 8월경 발표(2014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4.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VI.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동구 남동 45번지 2층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 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주시민가족은 향우장학회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고 제 2014 - 13호

임원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본부장(상근 임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5일

I. 채용대상

근무부서	채용직위	채용인원	담당 예정직무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상근 임원)	1명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 총괄 · 재단법인의 종합관리 및 운영 ·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II. 응시서류 접수

가. 기 간 : 14. 07. 21. ~ 07. 23. 09:00~18:00

나. 접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센터 사무실(061)288-3811)
○ 우편번호(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본 유효

※ 세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공고 제 2014 - 13호